

전남도, 농산물 도매시장 새 거래제 도입 박차

서울 가락시장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추진 연구용역 보고회 도, 공익형법인 운영·이익은 농가·소비자에게 가는 선순환 구조

전남도가 전국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세부 운영계획을 내놨다. 전남도는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농협전남지역본

부, 생산농업인, 대통령직속농특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법인

설립 형태, 취급 물량 및 운영비 산출, 공공성 확보 체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기본방향은 전남도가 직접 공익형법인을 운영해 농산물 거래의 경제적 이익이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인 참여자, 출자 규모, 생산 계약제배, 위탁수수료, 유통인 단체 참여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중

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약제배 규모를 늘려 안정적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설립법인은 전남도, 시군·농가·농협조직이 참여해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면서, 규모화된 유통조직의 공동 참여를 병행해 농산물 분산 기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 개설·운영을 반대하는 농식품부를 설득할 근거가 탄탄히 마련돼야 한다"며 "일반시장도매인과의 차별성과 공익적 효과에 대한 설득 논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원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는 공익형 비영리 수익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변동성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며 "지속 가능한 안정적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남도는 가락시장에 공영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현행 경매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서울시와 공유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실행계획을 설명하는 등 2023년부터 가락시장에 제도가 도입되도록 농식품부에 지속해서 승인 요청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공지능인의 밤 유공자 표창 22일 오후 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도 인공지능인의 밤 행사에서 조인철 문화경제 부시장과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소방차, 내년부터 교차로 진입 시 직진신호 받는다

호남권 첫 '긴급차 우선신호' 시연 평균 통행시간 최대 56.5% 단축

광주시는 "호남권 최초로 지난 3개월간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현장테스트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 광주에서 소방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직진신호를 받는다.

또 이날 서부소방서에서 운천저수지사자거리-상무중학교 앞 교차로까지 3km 구간에서 긴급상황을 연

출해 소방차와 구급차로 시범운영 실증도 시연했다. 실증 시연 결과, 평균 통행 시간이 기존 10분50초에서 4분43초로 줄어 최대 56.5% 단축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와 전용 스마트 태블릿 앱을 통해 우선 신호를 요청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경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녹색 신호시간을 자동 연장하게 된다. 이어 긴급차량이 해당 교차로를 통과하면 교통신호가 기존 교통신호로 자동 복귀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는 광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해 관내 5개 소방서에서 요청한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소방서-남광주역교차로 ▲서부소방서-금호지구구교차로 ▲광산소방서-성심병원교차로 ▲월곡119안전센터-월곡1동 행정복지센터 ▲월산119안전센터-백운교차로 ▲우산119안전센터-말바우교차로 ▲임동119안전센터-신안교차로 등 총 7개 구간에서 시행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해상접종센터 '적극행정' 최우수

해군 한산도함 연계 국내 첫 민관군 협력 예방접종

전남도가 추진한 '해군 한산도함 연계 해상 접종센터'가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지난 21일 수상했다.

시상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 공적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전남도는 감염병관리과 최병록 사무관이 상장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산도함 연계 해상 접종센터'는 국내 최초 민·관·군 협력 예방접종 추진 사례로 꼽힌다. 27개 섬 주민 638명에게 찾아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서비스를 했다. 물과의 접근성이 낮은 낙도·무의도서 주민의 접종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지자체 자율접종, 안센백신 등을 통해 미등록 외국인, 필수업무 종사자, 감염 취약시설 등 접종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접종을 하고 접종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전남도는 18세 이상 성인 3차 접종과 학생 예방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세 이상 누구나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보건소, 학교방문접종, 지정 의료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 접종할 수 있다.

전남지역 백신 접종률은 전 도민 184만명 대비 1차 87.5%(161만명), 2차 84.7%(156만명), 3차 33.4%(61만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십 년 묵은 매립 폐기물 유해성은?

광주시, 일곡동 근린공원 정밀 조사... 내년 12월까지

광주 북구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묻힌 대량의 폐기물 상태를 조사하는 용역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22일 일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립 폐기물 정밀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와 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조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했으며 내년 12월까지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매립된 폐기물을 시추해 유해성, 매립상태 등을 파악하고 침출수, 매립가스, 토양오염도 등을 4개월 동안 점검한다. 조사 결과 환경 오염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권한이 있는 광주 북구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LH-매립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폐기물 처리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2018년 12월 과거 생활 쓰레기 매립지였던 일곡 제3 근린공원에 청소년 시설 건립공사를 하던 중 지하 4~11m 지점에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 매립층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다. 1989~1996년 일곡 택지지구 개발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길게는 30년 넘는 쓰레기를 파내야 할지, 묻어둬야 할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2019년 추진한 환경영향조사에서 악취·토양 오염도는 법적 기준 이내였다.

매립가스 메탄 농도의 경우 제2 근린공원은 불검출로 안정화 단계였으며 제3 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 기준(메탄 5% 이하)을 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 경감

전남도, 내년 20%→10%

전남도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지방비를 40%로 인상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도내 농가의 자부담금이 총 28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절반인 143억원만 납부하면 돼 농가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장 내용과 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벼는 1ha 기준 보험료가 평균 62만원으로, 내년부터는 10%인 6만2000원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농가가 보험료의 10%만 납부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지난 11월 말 기준 13만9573ha로, 가입 대상 면적 대비 6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00ha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암 육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육계 약 6만4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중수본은 의심 사례가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책 살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겨울철 한파나 폭설 시 소독 시설 통과 방지를 위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 '광주형일자리'

• 국내 23년만에 완성차공장을 통한 신차 '캐스퍼' 생산

AI 융복합지구

- 국내 유일의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
- 세계적인 수준의 슈퍼컴퓨팅 시스템
- AI데이터센터 구축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1·II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무대

미래를 위한 AI융복합신산업 허브

광주경제자유구역

GJFEZ
광주경제자유구역청
GWANGJU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 한국전력과 연계한 전국 1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한국전기연구원 개원으로 미래형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개발